

對人關係에 있어서 肯定的인 힘에 對한 研究*

- (Ⅱ) 信賴 -

STUDY ON THE POSITIVE POWE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Ⅱ) THE ISSUE OF TRUST -

조 수 철**

Soo Churl Cho, M.D.**

요 약 :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한 개인에 있어서 생존하기 위하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며, 대인관계에서도 힘이 작용한다. 한 개인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생존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긍정적인 힘(positive power)”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부정적인 힘(negative powe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힘” 중에서 “신뢰”에 대하여 고전들에서 어떠한 교훈이 있나를 살펴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과 함께 통괄시켜 보았다. 대인관계에서 “서로 믿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기 위하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며,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가능해진다. 또한 성찰은 고전에 기술된 교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중심 단어 : 힘 · 신뢰 · 생존.

서 론

모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生存”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生存”이란 생물학적 또는 신체적인 측면, 또는 심리적 측면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사는 것(vive)”를 “초월한다(sur)”의 의미로서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다” 즉 “永生”의 뜻을 갖는다.

인간이 한개의 수정란(fertilized ovum)으로부터 출발하여 한 성숙한 인간이 될 때까지의 모든 발달 과정이 이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선 수정이 되는 과정

을 보면 이것은 한개의 정자와 한개의 난자가 만나서 한개의 수정란이 되는데 이 과정이 효과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번 사출되면 대개 3~4억 마리의 정자가 배출된다. 얼핏보면 이 과정은 아주 비경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절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지극히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이미 3~4억대의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세포분열과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수십조

*본 논문은 1995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비의 보조로 이루어졌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소아·청소년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Seoul

내지는 100조에 이르는 세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결합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생존이 불가능해지거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인간의 존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태어난 후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각종 반사들(reflex)도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흡철반사(sucking reflex)”, “연하반사(swallowing reflex)”, “후퇴반사(withdrawl reflex)”, “눈깜빡거리는 반사(blinking reflex)”, “모로씨 반사(Moro reflex)”, “젖꼭지 찾기 반사(rooting reflex)”, “수영반사(swimming reflex)” 등 수많은 반사작용들은 모두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프로그램들인 것이다. 눈맞춤(eye contact)도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어머니와 눈을 맞추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모성을 자극하여 어머니의 돌봄(maternal caring)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외에도 우는 행동(crying) 또는 웃는 행동(smiling)도 유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후 5~6개월이 지나면 소위 “격리불안(separation anxiety)”이 생겨서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는 행동을 보이며 8~9개월이 지나면 “낯갈이기(stranger anxiety)”가 나타나는데, 이 역시 유아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가진 불안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은 일생동안 되풀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생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존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힘(power)”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힘”이 있어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

“힘”이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힘”이란 “관계 지워지는 모든 상황”에서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힘은 크게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적인 힘이란 한 개인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며, “외적인 힘”이란 “다른 대상으로 향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또는

외적인 힘”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 “신체적 또는 물리적인 힘”과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힘”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전체의 힘은 “내적 신체적인 힘”, “내적 정신적인 힘”, “외적 신체적인 힘” 그리고 “외적 정신적인 힘”의 4종류로 나누어지며, 대인관계란 이 4종류의 힘의 조화와 균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힘”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즉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힘, 즉 생존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긍정적인 힘(positive power)”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파멸로 이끄는 힘을 “부정적인 힘(negative power)”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태도”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는 태도”가 왜 효과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를 연구하며 이러한 태도를 갖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연구함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고전에서 “신뢰 또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어떻게 기술되고 강조되어 있는가를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믿는다(信)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여 그 어원에 입각하여 고전을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교훈이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를 연결시켜 본다.

참고가 되는 고전들은 “성경”, “논어”, “대학”, “명심보감”이다.

결 과

믿는다는 뜻으로 가진 “信”은 “사람(人)의 말(言)”이라는 어원을 갖는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말(言)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면 “믿을 수 있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論語”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子貢問君子子曰 先行其言 而後從之.

자공이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가 말한 바를 실천에 옮기고 그 뒤에 행한 바를 좇아서 말한다”.

군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자공이 공자에게 물으니 행동이 말보다 앞선 사람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이다. 말을 앞세우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남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그 말이 행동을 넘어서는 일을 부끄러워 한다.

子曰 君子欲訥於言敏於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나 실천은 민첩하게 하는 사람을 이른다.

이 역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라는 가르침이다.

子曰 君子不以言譽人 不以人發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만 가지고 사람을 응용하지 않고, 사람이 싫다 하여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든지 말로는 진리와 정의를 외칠 수 있지만 이를 진실로 실천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에게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언행을 함께 보아야지 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가르침이며 또한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려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子曰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지 않은 것은 궁행이 미치지 못할까 부끄러워 하였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하지 않은 것은 말을 하고 나서 그 말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즉 언행일치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이다.

或曰 雍也 仁而不佞

혹자는 말하기를 웅은 어질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다고 한다.

子曰 焉用佞 禦人以口給 屢憎於人 不知其人 焉用佞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재주를 어디다 쓰겠는

가?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니 그가 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다 쓰겠는가?

말재주가 없어도 덕을 쌓을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재주만 부려서 처세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이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보다는 말은 비록 어눌해도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참된 사람임을 가르치고 있다.

子路使者羔爲費宰 子曰 賊夫人之子.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爲學 子曰 是故 惡夫佞者.

자로가 자고를 비읍의 읍제로 삼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자식을 망치는구나라고 하시자, 자로가 말하기를 그곳에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사운데 어찌 꼭 글을 읽은 다음에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만 잘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 역시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니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司馬牛問仁 子曰 仁者 其言也訥 曰 其言也訥 斯謂之仁 平矣 子曰 爲之難 言之得無訥乎.

사마우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란 말을 하되 말하기 어려운 듯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사마우가 말하기를 말을 하되 어려운 듯이 하기만 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행하기는 어렵다. 말을 하되 말하기를 어려운 듯이 할 수 있겠느냐?

공자의 제자 사마우는 조급하고 말이 많았던 제자였다. 사마우의 이러한 점이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적인 요소로 생각하시고 위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신 듯하다. 말을 항상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라는 가르침이다.

子曰 有德者 必有言 有言者 不必有德 仁者 必有勇 勇者 不必有仁.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꼭 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 꼭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덕 모두 중요하지만 말보다는 덕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孔子曰 侍於君子 有三愆 言夫及之而言 謂之隱 夫見顏色而言 謂之躁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를 접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잘못이 있는데, 말할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금하다하고, 말할 여건이 되었는데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이 멀었다고 한다.

항상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잘 가려서 말을 하여야 한다는 교훈이다.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안색을 잘 살펴서 상대방의 기분을 잘 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子曰 予欲無言 子貢曰 子如不言 則小子何述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이 없고 싶다”고 하시니 자공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무엇을 전술합니까?라고 하였다.

子曰 天何言哉 四時行言 百物生焉 天何焉哉.

이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사철이 운행되게 하고 만물이 성장하게 하되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라고 하셨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웅변으로 유명한 제자였다고 한다. 이 제자와의 문답에서 공자께서는 하늘의 도에 비유하여 하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사철을 운행하고 만물이 소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셨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을 아끼고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2. “大學”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是故 言悖而出 亦悖而入 貨悖而入者 亦悖入出.

그러므로 말이 어긋나게 나가면 역시 어긋나게 들어오고, 재물이 어긋나게 들어오면 역시 어긋나게 나간다.

말조심을 하라는 가르침이다. 말이란 항상 그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어긋나게 말이 나가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법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이 곱다는 우리나라의 속담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가르침이다. 항상 말조심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심사숙고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3. “明心寶鑑”에서의 말에 대한 교훈

劉會曰 言不中理 不如不言.

유회가 이르기를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니함만 같지 못하다.

말을 할 때에는 잘 생각하여 횡설수설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조리에 맞게 하여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一言不中 千語無用.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쓸모가 없어진 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말을 아끼라는 가르침이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口是傷人斧 言是割舌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으나 편안할 것이로다.

역시 말을 조심하라는 교훈이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는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

4. “聖經”에서의 믿음에 대한 교훈

창세기 2 :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 : 10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출애굽기 20 : 13-16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시편 2 : 12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 남지 못하리라.

시편 13 : 5

이 몸은 주의 사랑만을 믿사옵니다.
이 몸 건져 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

시편 32 : 10-11

악인들에게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싸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다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

시편 40 : 17

나의 주여,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
어서 도와 주소서.
나의 도움,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더디하지 마옵소서.

시편 130 : 1

야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노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

잠언 12 : 17-24

바른 말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지만
거짓 증언은 하느니 거짓말뿐이다.
함부로 뱀은 말은 비수가 되지만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남의 아픔을 낮게 한다.
참말만 하는 입술은 길이 남아나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찢린다.
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피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야훼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미워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속이 깊은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체하지만
미련둥이는 어리석은 소리를 떠들어댄다.

유딧 9 : 11

당신의 위력은 많은 수효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능력은 힘센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잘 것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약한 자를 붙들어주시는 분이시요,
버림받는 사람들의 보호자이시며
희망없는 사람들의 구조자이십니다.

유딧 13 : 19

당신이 희망하던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
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힘을 길이 기억할 것입
니다.

마태오 5 : 33-37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
은 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
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옥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
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
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회
계나 검게 할 수 없다.”

마태오 7 : 7-11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
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
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
시지 않겠느냐?”

마르코 10 : 15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가 7 : 49-5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와 한 식탁에 앉아 있던 사
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데 죄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하고 수근거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12 : 31-32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15 :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4 : 24-26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조상이시며 주님의 종인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떠들어대고
못 백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 그리스도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주들이 함께 작당하였다.

사도행전 20 : 22

이제 나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로마서 8 : 38-39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II 고린도 1 : 18-20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결코 맹세하거나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테오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 : 10

여러분과 함께 주를 믿는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 4 : 45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골로사이 3 : 9-10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I 데살로니카 1 : 9

우리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오히려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II 데살로니카 3 : 3-4

주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명령대로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II 디모테오 1 : 12-14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십시오.

히브리서 11 : 17-18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사악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이사악은 외아들이었고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

속까지 해주신 아들이었지만 그를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 찰

1 베드로 2 : 1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사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갓난 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요한 1서 2 : 21-23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진리로부터 거짓말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적이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 2 : 28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 오시는 그 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1서 4 : 16-18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 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 묵시록 21 : 6-8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였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칙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인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향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요이다.

이상이 고전에 기술되어 있는 말에 대한 교훈이다. “人間”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의미이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란 즉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라는 것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언어성 대화”(verbal communication)이며 다른 하나는 “비언어성 대화”(nonverbal communication)이다. 이 둘 모두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힘이 생기면 대인관계에서 그만큼 생존하기가 쉬워진다. 결과 부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성경과 논어, 대학, 그리고 명심보감 이 모든 고전에서 “조심스러운 말”은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많은 고전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말은 쉬우나 실천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신뢰”라는 덕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가 힘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듯하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있음”이라는 심성의 부분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효과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며 신뢰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효과적인 힘”을 갖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고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의 많은 경험에서 “조심스러운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량 빛을 갚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아일언은 증천금이다”, “말이 많은 집의 장맛은 쓰다”는 등의 속담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말만 앞세우고 자신의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대인 관계란 결국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화란 부모-자녀지간, 형제-자매지간, 스승-제자지간, 친구지간, 선후배지간, 의사-환자지간, 이웃지간 등 대인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이란 우리의 생활의 일부이며, 또한 이러한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항상 대화를 원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의학에서 환자를 도와주는 과정도 결국은 부모-자녀간의 대화, 부부간의 대화, 친구지간의 대화, 스승-제자간의 대화, 선후배지간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등, 대화(communication)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상태에 대하여 항상 깊은 성찰을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감정이 미숙한 사람들, 자신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결과로 불신감을 일으키게 된다.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이 삼자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전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참아야 할 때도 있으며,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말을 하는 것이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내용의 말은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이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은 너무 많아도 탈이요, 너무 적어도 탈이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다. 巧言令色, 妄言, 流言蜚語, 虛言, 失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많은 말들이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항상 주의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집단과 집단간에도 대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과 집단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는 전쟁으로까지 발전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발생한다. 한 집단 내에서도 그 집단이 원만하게 이끌어지기 위하여는 상하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言路라고 하는 것이다. 집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단의 전체적인 의견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면 독선적으로 흐르게 되며 그 집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

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조 때의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서 부른 총칭) 중, 사간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임금의 잘못에 대하여 직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며, 사간의 간언에 대하여는 임금도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상소제도가 있어서 임금의 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여도 이 내용에 대하여 또한 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소위 언로를 원만하게 하여 임금이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독선적인 지도자 앞에서는 아랫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기 때문에 독선적인 지도자는 더욱 더 독선적으로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며, 따라서 바른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명나라 시절 관리였던 呂坤이라는 사람은 “呻吟語”라는 그의 저서에서 관직이 높아질수록耳目이 가려진다고 갈파한 바 있는데, 이것은 명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細口巨耳” 즉 “말은 적게 하고 귀는 넓게 한다” 이 또한 중요한 교훈이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공자께서 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늘의 이치에 비추어 “予欲無言”(나는 말이 없고 싶다)고 하셨는가를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자께서도 “知者不言 言者不知” 즉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言語道斷” 이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말(言語)은 도(道)를 끊는다(斷)”가 된다. 말이 많으면 도를 통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말의 적절한 사용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신뢰, 거짓말 또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 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양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문제는 에덴동산 시대부터 이미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는 것을 금하고 선과 악을 분간하기 위하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하고 있다(창세기 2 : 17). 그런데도 처음 나타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

숨보다는 한개의 피조물(뱀)의 말을 믿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체험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서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에서나 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서 고통이 수반되고 이윽고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창세기 3:10, 히브리서 11:1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유딧은 조건이 없는 신뢰를 역설하며 스스로 “사람의 마음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신뢰(유딧 13:19)의 모범”을 남기고 있다. 유딧이 이런 신뢰를 간직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절망한 자의 구주인 동시에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유딧 9:11)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뢰와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시편의 작가도 “깊은 구렁 속에서”(시편 130:1), 다음과 같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 “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몸이지만 어서 도와주소서”(시편 40:17),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한다”(시편 13:5), “야훼에게로 피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시편 2:12). 예수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에 마음을 열도록 제자에게 권한다(마가복음 10:15). 이런 태도로 기도를 드리면 확실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소원은 이루어진다(마태복음 7:7-11). 이런 신뢰에 넘친 기도를 통하여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누가복음 7:50).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이 신앙을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신뢰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도 각오해야만 한다. 예수 자신도 산제물을 완성하고 신뢰의 절규를 토하면서 숨을 거두었을 때(누가복음 23:36), 이런 일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예수는 이렇듯이 신뢰에 넘친 사랑의 행위 즉 산제물을 통해서 악의 모든 세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요한복음 12:31-32).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뢰심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에 기초를 부여한다. 제자 바울도 신뢰라는 면에서 충실한 증인이 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실을 자신의 성실의 바탕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인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사도행전 20:22, 데살로니카후서 3:3-4).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계속 굳게 간직한 이러한 신뢰로부터(갈라디아서 5:10), 하나님의 말씀을 대담하게 전

한다는 불요불굴의 확신이 생겨난다. 이미 초대 교회의 신앙인들이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을만한 은혜로 신뢰에 바탕을 둔 기도를 통하여 이미 생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도행전 4:24-31).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이 불변의 신뢰감을 마지막까지 견실하게 간직할 때에(히브리서 3:14), 기쁨과 자량이 보장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고(히브리서 13:6), 자신이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알고 있다(디모데후서 1:12).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로마서 8:38-39). 하나님에게 성실하기 위하여는 결국 항상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를 간직하고 있어야만 하지만 거꾸로 성실은 신뢰를 확고부동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는 충성으로 입증이 되면서(요한복음 15:10), 신뢰를 완성시키기 때문이다. 사랑에 머무는 자만이 심판의 날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에 완전한 확신을 지니고 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요한일서 2:28, 4:16-18).

거짓말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거짓말”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거짓말”의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교훈을 주고 있다. 율법은 우선 특정한 인간 관계에서의 거짓말을 금하고 있다.

그것은 십계명에 명기되어 있듯이(출애굽기 20:16, 신명기 5:20) 소송에 있어서의 거짓 증언을 의미한다. 이 위증은 단지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레위기 19:11). 이러한 생각은 예언자들의 윤리적인 가르침 속에도 발견된다(잠언 12:17).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경우에도 성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단호히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은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태복음 5:37). 바울도 이런 성실을 자신의 행동규범으로 삼고 있다(고린도후서 1:17-18). “그러므로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 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 입었습니다”(골로새서 3:9-10).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에베소서 4:25).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형제적인 연대의 끈을 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야훼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된 우상에 눈이 어두워 야훼를 부인하는 일 이 자체는 최대의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생활 자체로 하는 거짓말이 된다. 바울도 이러한 이유로 이교도를 향하여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라”(데살로니가전서 1:9)고 권하고 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의 생활에서 온갖 거짓말을 벗어버리도록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베드로전서 2:1). 이 거짓은 단지 말로만 하는 헛소리나 위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짓 전반을 가리키고 있다(요한계시록 21:8).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에게서 계시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반그리스도는 최대의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다(요한일서 2:22).

정신의학에는 많은 학설들이 있다. 이러한 학설들은 그들이 인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학설로서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학설을 인간의 문제와 관계지어 설명하는 과정을 “외적태도(external attitude)”라 한다면, “인간에 대한 진지한 자세”, “인간의 고통을 진지하게 해결해 주는 자세”, “인간 존재에 대한 경외심”,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실천” 등은 “내적태도(internal attitude)”라 할 것이다. “내적태도”와 “외적태도”는 모두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즉 “내적태도”는 “외적태도”를 강화시켜 주며, “외적태도” 또한 “내적태도”를 강화시켜 준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내적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적태도”는 학문의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지만, “내적태도”는 “변화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외적태도”는 수단이며 “내적태도”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문적인 지식이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정신의학의 많은 학설들이 “외적태도(external attitude)”에 대한 강조는 많이 하고 있으나, “내적태도(internal attitude)”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미미하다.

“외적태도”는 전문 서적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를 환자나 그 가족 또는 피교육자들에게 적용하면 성취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내적태도”를 강화시킬 수가 없다. “내적태도”에 대하여 “내적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古典들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적 태도”가 확고해지고 궁극적으로 “외적태도”와 “내적태도”가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숙한 인간” 또는 “성숙한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환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학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외적인 태도”를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상호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내적태도”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과적으로 환자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로서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나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받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줌으로써 의사로서의 효과적인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환자나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신중하게 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내적태도”가 확고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교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References

- 聖書, 공동번역(카토릭움, 1977) : 대한성경공회, 서울
 論語, 홍승직 역해(1994) : 고려원, 서울
 大學, 中庸, 홍승직 역해(1994) : 고려원, 서울
 明心寶鑑, 이기석 역해(1992) : 홍신신서, 서울

STUDY ON THE POSITIVE POWER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II) THE ISSUE OF TRUST -

Soo Churl Cho, M.D.

*Department of Psychiatry(Divis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All human being can not exist by oneself. That is, all human being depend on intimate attachment for their surviv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powers are prerequisites for one's survival and these serve important function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 are two kinds of powers. One is positive power which helps one survive effectively. Another one is negative power which disturbs one's effective survival.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the precept of "trust" which is described in "Bible" and oriental classical books such as "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ao Te Ching" etc. and tried to integrate this precept with the importance in everyday life. "How to communicate" is closely related to "trust" and one's speech is closely related to one's thinking or emotion. Thus in order to keep trustful communication, one has to introspect oneself to understand one's own emotional reaction.

KEY WORD : Power · Trust · Survival.